광산업육성 지원·연구기관

광산업체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이기태)에서는 6월 12일, 한국광기술원 3층대강당에서 11개 광산업육성 지원 연구기관의 광산업체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여 광주광역시장(박광태 시장)과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전영복 상근부회장), 한국광기술원 원장(유은영 원장)을 비롯한 광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기관별 광산업체 지원사업 및 인력현황,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장비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금번 사업설명회는 광주지역 첨단단지 내에 위치한 광산업육성 지원·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광산업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지원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그동안 광산업육성 지원·연구기관에서는 광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여 왔으나, 상호간에 정보교류가 부족한 문제점 등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분석 및 홍보를 통해 광산업체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한국광산업 진흥회가 주도적으로 광산업육성 지원·연구기관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광산업체에서도 해당 기관·단체 및 광주 광산업대표자 협의회를 통해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채널을 상설화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및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 광산업계, 'LED 조명도시' 건설 총력

광주 광산업계가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도시 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LED도시를 선언한 광주시는 한국광산업진흥회 · 한국광기술원 ·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LED 조명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미나 등을 개최해 LED조명도시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LED 조명 보급을 꾀하는 등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광주, 왜 LED조명도시인가 = 광주광역시는 광주가 LED조명도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온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1 · 2단계 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한 광클러스터 및 LED 밸리가 조성돼 있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으며, 내년 10월 개최될 예정인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국제적으로도 광산업 도시라는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산업 유관기관의 다양한 LED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의 LED신호/조명시스템시범구축사업(82억), 한국광기술원의 반도체광원 시험생산지원사업(340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OLED 기술개발(203억),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의 LED 미니클러스터 운영, 광주디자인센터의 조명디자인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LED 관련 기업 집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 LED조명도시 조성사업 개요 =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국비 1,800억 등 총 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프로젝트로서 지식경제부 중기이행사업으로 반영이 확정될 경우 이 사업에서는 LED 조명 확산 · 보급(1,800억)과 제품 개발 및 실증(800억) 등이 추진된다.

1단계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LED조명 산업지원센터 및 전시관을 설치하고 LED 조명도시 보급 로드맵을 마련하며 의료 · 농업 · 환경 LED제품을 개발하고 LED조명 보급하기 위한 법령 등 지원정책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인 2011~2012년에는 LED 융합제품을 개발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LED 조명 보급 및 호텔이나 백화점, 공장 등 민간건물에도 LED 조명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광주광역시는 LED 조명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오는 2015년 10조원대의 매출과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 1조6000억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가 세계적인 LED조명산업 클러스터 및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LED 조명 보급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LED 조례를 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이어 지식경제부와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성공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단순히 LED조명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LED조명산업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류용빈 광주광역시 과학산업과장은 "광주가 LED 조명도시로 최적합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상태" 라며 "미래 고부가가치인 LED산업을 특화 육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기술 및 특허동향 지식재산권 설명회 개최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이기태)에서는 6월 11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광산업관련 산학연관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08년도 광산업신기술 및 특허동향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한 지식재산권 설명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가는 광산업분야 국제 신기술 동향 정보를 습득하고, 신규로 출원되는 특허 동향 및 국제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특허분쟁사례를 분석하여 광산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광산업체의 기술개발전략과 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금번 설명회에는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중국과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FTA와 관련 국내 광산업체가 준비해야할 전략과 영향을 분석해보는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광산업체가 여타 업종보다도 국제적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며, 아울러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LED 및 태양전지 기술과 이에 대한 특허출원 동향 및 특허 분쟁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영복 상근부회장은 "광산업체의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시장공략전략 수립은 물론 특허출원정보제공 및 관련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의 보호는 기업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경영전략"이라고 진단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이와 같은 광산업체 경쟁력강화 차원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홍보전시관' 새단장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광산업홍보전시관이 LED 신호조명시스템시범구축사업 참여업체의 개발성과물 및 사업 홍보를 위해 「LED 상설 홍보전시 부스」를 새로 단장했다.

LED응용제품의 일반조명 대체 가능성 제시 및 환경친화적 LED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LED상설홍보부스 내의 조명은 LED제품(100%)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홍보관 내·외부 실내조명을 기존 일반조명(형광등, 삼파장램프, 할로겐램프)과 비교를 위해서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했다.

기대효과로 홍보 학습을 통한 신규수요창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체험홍보관의 일부분으로 LED신호조명시스템시범구축사업 개발 성과물의 사업홍보 및 미래 LED 제품을 이용한 첨단 조명 시설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2일 광주광역시장(박광태 시장)이 전시관을 방문했으며, 고유가 시대에 신재생에너지로서 LED조명 보급 및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시급하다며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산업홍보전시관에 설치된 광산업 제품은 305개 품목 913개 제품에 달하며 홍보전시관을 개설한 이후 방문한 국내외 광산업관련 참관객은 7,922명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유일한 광산업홍보전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APID